

이재명 대통령 “자영업자 빛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국민패널 100여명과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 토크 라이브… “국가 산업경제 구조 바꾸는 데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는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빛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갖은 빛을 신속하게 탕감한다. 우리는 한 번 빛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능한 방법을 함께 논의해보겠다”며 “권한을 가지면 점점 현장에서 멀어지는데, 의도적으로라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껴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자영업 내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 망하면 그 자리 가서 또 망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줘서 안타깝는데,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 동네, 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룬다.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김동한 삼프로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국정자료배터리 화제에 관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국정자료’李책임론에 “세월호와 비교할 상황 아냐”

행안위 행안부 국감… “사안 엄중히 받아들여” “세월호와 비교 안돼… 화재시 미국서 돌아와” “27일 뭐했나” 지적에… “화재 진압 우선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 국정자료(국정자료)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우선 “지난 9월 26일 국정자료 화재로 다수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재방화 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번 사태에 따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가 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세월호)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당 대표 시절에는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때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는 국정자료 화재 시 미국 유엔총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계셨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이 “장관을 경질하고 했는데 (그 때와 지금 상황 중) 어떤 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윤 장관은 “당연히 지금 화재 사태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화재 직후 전체 시스템 정상화 목표로 ‘4주’를 잡았다가 이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초기 판단은 그랬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은 709개 중 287개로, 복구율은 40.5%다.

화재 발생 2주 만에 장애 시스템 개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한 데 대해서는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엔탑스’(nTOPS)라는 관리 시스템에 장애 발생해 확인을 못해서 중앙관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록만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 하루 동안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상황 파악을 계속 하셨다”며 “진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세월호)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했던 분이

여야, 법사위서 ‘이화영 변호인 교체’ 공방… “김현지 개입” vs “檢 진술 회유”

여야는 국정감사 2일차인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일명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23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게 보고 했다는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자백 후 불과 3일만인 같은 해 6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설주만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다”며 “아직 선임도 안된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가 7월12일 이 전 부사를 접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 변호사를 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현 대통

野주진우, ‘이화영 수사’ 박상용 교수 질의서 의혹 제기

추미에,李에 해명 기회… “첫 변호인,檢 돕는 태도 보여”

여야 반말 고성도… 신동욱 “왜 반말” 박지원 “너한테 가능”

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쟁점했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박 교수에게 물었다.

박 교수는 이에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이 박 교수에게 ‘(설 변호사)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그 때문에 나는 나올 수 없다’며 사임계를 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박 교수는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 전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의 질의응답에서 “이 전 부지

사가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연어와 술이 (조사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 허락 하에 (술 등이)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교수가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 교수가 동석한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이어 “그들(검찰 수사팀)이 이재명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했

냐는 취지로 문자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지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에 법사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줘 변호인 교체 의혹에 대해 해명하게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제가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하고 설전을 벌였다”며 “설 변호사는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질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주어진 시간을 넘겨 질의를 이어가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했다. /뉴스1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 14억 중 3억 징수 정은경 “나머지 환수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서 답변

김건희씨가 가족이 운영해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 4000만원 중 현재까지 3억 7700만원이 징수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나머지 부분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요양원의) 환수 징수액 징수를 끝까지 해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점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 중 3억 7700만원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남양주시가 이 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당분간 상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처분기간 이전까지의 급여비용은 전산 상계처리하고, 27일 행정처분 개시 이후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 및 채권 확보 등 신속히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

2025 청정완도 가을 신여행

2025. 10. 24. (목) - 10. 26. (일)

완도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

개막축하쇼
10월 24일(목) 17시-19시

김희재 **린** **황치열**

상설 프로그램

- 홍보관: 2026 Pre 연도국제레저투어 박람회 홍보관, 완도해양치유 홍보관
- 다양한 자연 체험 키치니,이
- 과학 수시대 차가량별 뷰타상용
- 완도호랑기시 동화 속 여행 체험
- 동화의 시작 4차 체험 도아를 만들기 가래떡 만들기
- 완도의 가을 포토 체험
- 남만 가을 포토존
- 브로마이드 포토체험
- 주어의 진땀놀이
- 막대지기 말고나만들기 주어의 구멍가게 전통 놀이
- 가을 해변 특산물 축제
- 체험존, 전시존 촬영존, 야외 도사관 풍요&오류물 적응코스트 동화작가와의 만남 동시 낭독

권역별 프로그램

- 안도 구역: 안도수목원 그린페스티벌
- 신지 구역: 제2회 맨발걷기 페스티벌
- 청산 구역: 청산수, 푸아, 밤송이 불꽃놀이 신혼리 맨발 걷기
- 생원 구역: 생원리
- 행머리 구역: 행머리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 그리고 힐링

함께라서 더 좋은 치유

할인 EVENT!

가족(3인 이상) 30%
단체(10인 이상) 20%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

할인 EVENT!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100
Tel. 061) 550-7675 ~ 6 / 인터넷(홈페이지) 예약 필수

위 치	기본 ①	기본 ②	디럭스	프리미엄	전문 수중 재활
대인	36,000원	28,000원	28,000원	125,000원	1:1 90,000원
소인	26,000원	22,000원	80,000원	125,000원	2:1 70,000원

※ 안전상의 이유로 36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